

사회

경매 유찰 '가짜 유치권' 판친다

낙찰가 하락 금융기관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광주지방법원은 정모(54)씨 등 4명에 대해 최근 경매방해 혐의로 고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씨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해 경매를 유찰시켜 낙찰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광주시 북구의 감정가 75억원 짜리 건물은 7차례 유찰된 끝에 18억원까지 낙찰가가 떨어졌다. 경매업계에서는 건물주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가격을 대폭 낮춘 뒤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낙찰받도록 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

다했다.

경매과정에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매 유찰과 낙찰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낙찰가 하락으로 금융기관 등이 채권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을 수 없어 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매기일이 늦춰져 불특정 다수의 경매 참가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0일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진행된 경매에 나온 물건은 모두 51건으로, 이 가운데

매각된 것은 15건에 불과했으며 21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물건 모두 공사대금이나 노임 등과 관련 유치권 신고가 돼 있었으며, 경매참가자들은 낙찰받은 뒤 급전적 부담 때문에 유치권 신고 물건을 의문했다는 분석이다.

경매사 서모(여·55)씨는 "7년째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유치권 중 대부분은 가짜라고 보면 된다"며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중하게 경매를 받아 자금을 회신시키고 있는데 유치권이 신고되면 이것이 불가능해 참여를 꺼린다"고 말했다.

최근 경매가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유치권 허위 신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채무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 이해관계인과 서로 짜고 공사대금 또는 임금을 부풀리는 것은 물론 경매에 넘겨질 것을 대비해 사전에 경매물건과 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만드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경찰, 10대 조폭 영장

소년원에서 출소한 1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친구를 보복 폭행했다가 다시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동부경찰은 10일 친구를 모델로 불러내 감금 폭행한 광주 무등산과 폭력조직원 이모(19)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19)군은 지난달 12일 오전 7시에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한 모텔로 친구 박모(20)씨를 유인해 감금한 뒤 수차례 주먹을 휘

둘러 친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2년 전 인터넷 사기범행을 공모한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해 18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되자 출소 이후 박씨를 상대로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은 과거 사기범행을 공모한 박씨가 재판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실토해 자신의 형량이 높아졌다고 판단, 지난달 말 출소 이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쳐다본다" 제대 휴가 군인 때려 숨져

목포경찰, 대학생 들 영장

목포경찰은 10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군 제대를 앞둔 20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남 모 대학 2학년 조모(23), 김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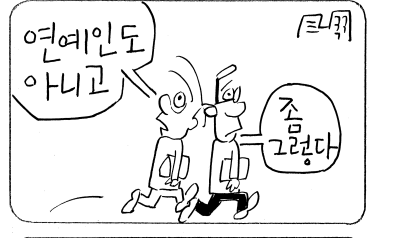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30분경 목포시 상동 골목길

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김모(22)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마지막 휴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남 모 대학 2학년 조모(23), 김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3시30분경 목포시 상동 골목길

나원침 (8542) 김중두



여자문제 친구 살해범 검거

여자문제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가 10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0일 오전 6시30분께 살인혐의로 서모(40)씨를 대구의 한 터미널에서 검거했다. 서씨는 지난 9일 밤 8시27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편의점 앞에서 친구 이모(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미술사 최현우 녹화중 김전사고

○미술사 최현우(26)가 방송 녹화 리허설 중 김전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중환자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경미한 사고로 드러나 팬들이 안도.

○10일 매니지먼트사 아이디얼매직엔터테인먼트와 CJ E&M 등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tvN 파일럿 프로그래밍 '마법의 왕' 녹화 도중 김전 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속사가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김전사', '중추신경 마비 증세를 보여 향후 활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최씨 측은 "마비 증세는 아니며 신경에 이상이 있지만 호전되고 있다"고 해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병영체험하는 여고생들

대평고(교장 이창호) 학생들이 10일 육군 제31사단이 마련한 병영체험 행사에서 유격훈련을 마치고 해맑은 표정으로 총을 들어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10년째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인비리 기소 공무원 등 10명 보석

광주지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수사 결과 내주 발표

법원이 광주시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 업체 관계자 10명에 대해 보석을 결정, 석방했다.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최찰민 판사는 지난 9일 오후 대립건설 운모(52) 상무와 금호산업 김모(48)

상무, 코오롱글로벌 서모(53) 상무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납입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또 광주시 서기관 유모(59)씨 등 공무원 4명과 전남대 박모(50) 교수 3명 등 7명도 보증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불구

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번 총인저감시설 입찰비리와 관련 다음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도 해상 그물서 시신

여수 백도 인근 해상의 어업 그물에 시신 1구가 걸려 있는 것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삼산면 백도 남동쪽 26km 해상에서 부산선적 대형기선저인망 K호 관계자가 그물에 걸려 있는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상당 부분 훼손돼 있었으며 검은색 운동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다

노래방 강도 행각 30대 전동 끄러 왔다가 탈미

'범인은 사건 현장을 반드시 다시 찾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노래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침입한 노래방의 전등을 끄기 위해 다시 들렀다가 범행 3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탈미를 잡혔다.

노래방 등에 음료수를 납품해 온 윤모(36)씨는 10일 새벽 1시 40분경 광주시 남구 주월동 황모(여·46)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황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 등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현금 37만 원과 휴대전화, 차량 1대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

그러나 윤씨의 범행은 그가 노래방에 다시 돌아오면서 들켰다. 윤씨에게 현금을 빼앗긴 노래

방 업주 황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윤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의 번호를 확인한 뒤 노래방 주변을 중심으로 추적이 나섰다.

그 사이 윤씨는 범행했던 노래방으로 돌아왔고 경찰 모습이 보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붙잡혔다. 윤씨는 노래방에 전등이 켜져 있으면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 다른 손님에게 범행이 탄로 날 것 같아 불을 끄기 위해 다시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리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음료수 납품일을 하면서 알게 된 노래방을 범행 장소로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은 윤씨의 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한 뒤 윤씨에 대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국제환경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삼일로) 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교)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02-733-0220 송파점(세종대)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인천로) 03-2421-29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031-821-6655 안양점(안양역)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역)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031-376-4183 부천점(부천역) 032-329-4400 남양주점(남양주역) 070-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역)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남포동역)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역)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05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역)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053-426-1511 남일점(남일역)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244-5110 안동점(안동역) 054-659-2248 광주 광주점(광주역)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25-5728 군산점(군산역) 063-446-0198 익산점(익산역) 063-638-5000 남원점(남원역) 063-632-2626 대전 대덕점(대덕역) 042-254-5110 대전 중구점(중구역)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153-2988 광주점(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22-1177-8 충북점(청주역) 043-66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033-647-0588 충청점(충청역)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064-753-4558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